불교 죽음관·근대 종단 성립 연구 '눈길'

2018 가을학기 불교학 박사 논문들 〈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 가을학기에 동국대에서 11명의 불교학 박사가 배출됐으며, 중앙승가대에서는 1명,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1명의 박사가 배출됐다. 이들 가을학기 박사 학위자들의 박사 논문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한역 불전으로 살핀 불교 죽음관

도현 스님(중앙승가대 역경학 전공)은 '불교에서의 죽음(死有)에 대한 연구-시대별 한역 불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현 스님은 4아함경을 중심으로 한 초기불전에서 죽음 관련 어원과 명칭, 삼계, 12연기, 열반을 중심으로 당시 사유 관련 내용 및 인식을 고찰했다.

스님은 "초기불전에는 직접적으로 '사유'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삼계·삼유·연기·열반 등을 통해 죽음 관련 의미와 명칭, 과정, 현상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대비바사론〉과 〈구사론〉을 중심으로 한 부파불전에서는 초기불전과 달리 '사유'의 명칭과 그 과정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스님의 분석이다. 도현 스님은 "부파불전에서는 죽음에 대해 다양하게 설하면서 사유와 본유·중유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드러내어 초기불전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유관(死有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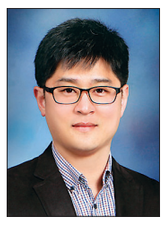
〈정법념처경〉, 〈대보적경〉, 〈중론〉 등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전은 초기·부파불전에 비해 사유와 열반에 대한 의미와 인식이 더욱 명확하다. 스님은 "대승불전에서는 초기불전과 부파불전의 사유 관련 인식을 전제로 사유와 중유의 과정, 열반을 통해 사유와 중유의 연관성, 사유와 열반에 관한 인식 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허 스님 '사교회통' 사상 분석

'탄허 택성의 사교회통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문광 스님(한국학중앙연구원)은 불교·유교·도교·기독교 등 4개 종교에 대한 회통사상을 펼친 탄허 스님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도현 스님


문광 스님


김성연


이선용

출가 전 유가와 도가를 섭렵하고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탄허 스님은 3년간 묵언참선 수행을 하고 7년 간 교학을 공부했다. 불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해부되지 않았던 노장학을 자득했고 한문본 〈성경〉을 독파해 기독교에 대해서도 선적 안목으로 해석했다.

문광 스님은 탄허 사상의 핵심을 선과 화엄의 완전한 융회로 보았으며, 그의 사교회통의 원리 역시 선사상과 화엄사상을 함께 원융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광 스님은 탄허 스님이 선(禪)에서는 '심성(心性)'과 '성(性)자리'를 종지로 삼았으며 화엄에서는 '성기(性起)'와 '무애(無碍)'를 회통의 중심원리로 삼았음을 논증하며 "탄허의 사교회통사상은 한국불교의 정체성 담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회통불교의 전통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되살아났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종단 형성 어떻게

김성연 박사(동국대 사학과)는 '일제하 불교 종단 형성 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성연 박사는 한국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종단 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불교가 종교로서 근대화하기 위해 지향한 조직이 종단이었음을 주목하고 특히 선종의 전통성을 강조하며 선종 종단 설립에 매진했다. 일제강점기 불교 중앙기구의 발전 양상을 보면, 점차 조선 불교를 총괄하는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갔다. 연합제규, 재단법인 기부행위정관, 종헌 등은 중앙 행정 및 재정 확보에 있어 중앙기구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해 나간 규정들이었다. 특히 종헌을 바탕으로 삼권 분립의 중앙 행정기관을 정비한 것은 종단 성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종단은 본산 주지 임명권이나 재산을 처리하는 재정권을 갖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여서 운영상 한계는 노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성연 박사는 "1929년의 종헌, 1941년의 조계종이 있었기에 해방 후 불교 재건 노력과 종단 설립에 대한 의지를 이어갈 수 있었고, 비구-대처 대립을 넘어 1962년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1941년 조계종 총본사가 세워진 이후 안정된 독립 재정구조가 정착되면서 종단체제의 재정기반이 마련됐던 점은 이후 불교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려~조선 불교조각 복장 특성은

이선용 박사(동국대 미술사학과)는 '한국 불교복장의 구성과 특성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선용 박사는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불교 조각의 복장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했다. 이를 위하여 한국 복장의 전형을 마련한 고려시대 이전 복장의 시원 형식을 추정하고 중국과 일본의 복장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복장의 형성과 전개에 대하여 살폈다.

또한 〈조상경〉을 토대로 물목의 전개와 흐름, 불화로 확산된 불교복장의 요소, 오방으로 규범화된 사상을 통해 한국 불교복장의 특징을 규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초기 불교복장은 사리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이미 중국, 일본과 다른 공간·의식적 규범을 마련했으며, 이를 복장으로 정의했다. 밀교가 결합된 사상은 구체적인 물목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고유의 불교복장을 형성·전개했다.

또한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복장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을 불화에 접목시켜 물목과 의식에 기반을 둔 〈조상경〉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했다.

이선용 박사는 "복장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주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만 하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면서 "한국의 불교복장은 사상과 물목, 그리고 의식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한국불교와 미술의 역사·사상적 산물이자 시대·문화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미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으며 다른' 中日불교 전쟁 인식·태도

조문홍 中사회과학원 서기
국제불교학술교류회서 주장

중일전쟁 당시 양국 불교계
전쟁 참여 독려·지원 및 봉사
"종교, 선량한 역량에 노력해야"



연세대 철학연구소와 한국선학회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연세대 문과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제불교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937년 7월 7일의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1945년 9월 2일의 일본 항복까지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인 중일 전쟁에서 중국과 일본 불교의 전쟁 태도를 비교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조문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당위서기는 8월 24일 연세대 문화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세대 철학연구소와 한국선학회 주최로 열린 국제불교학술교류회에서 '항일전쟁 기간 중 중일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태도 비교'를 발표했다.

조 서기는 형식적으로는 전쟁 당시 양국 불교의 태도가 매우 유사하나 내용은 상이함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쟁 당시 중국과 일본 불교는 모두 전쟁을 지지했다. 실제 일본 조동종의 학자는 "선(善)을 목적으로 한 전쟁은 선한 것"이라고 했고, 사변이 터진 후에는 중국 불교계도 "중국의 항전은 전쟁을 소멸시키고 멈추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이에 대해 조 서기는 "중국과 일본 양국의 불교계는 모두 전쟁에 봉사하도록 승려를 격려하고 동원했다"면서 "양국 승려들은 모두 군대에 봉사하고 국내외 홍보와 정보활동에 참여했으며, 직접 입대해 투쟁하기도 했다. 전쟁터에서 중국과 일본의 스님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서기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 중국불교계는 일본 승려들을 동문 형제로 보고 성명을 보내 전쟁을 저지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승려들은 전쟁을 홍보하고 가사를 입은 채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는 오로지 정의로움과 결합해야 종교의 자비·박애·평화 등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 선량한 역량을 축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근현대불교의 사상과 의례'를 주제로 열린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불교학자 13명이 참여했으며, 선(禪)부터 불교음악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참여 학자들은 매년 교류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내년에는 '불교문화교류'를 주제로 10월 경 학술교류회를 중국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 파키스탄 간다라 유산 보존 나선다

문화재청, '혜초 서역 기행 알리기' 연계… 보존 장비 지원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 간다라 유산 보존에 나선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주파키스탄 대사관(대사 곽성규)의 '혜초 스님의 서역 기행 알리기' 사업과 연계해 파키스탄 교육역사문헌유산부(장관 샤프카트 마흐무드)와 간다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파키스탄은 고대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인 인더스 강을 끼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중동, 인도 대륙과 접하고 있다.

현재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있으나 과거에는 간다라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와 융합하여 간다라 불교 미술이 처음 발생했으며, 당시 불교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라 혜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에는 혜초가 파키스탄의 치트랄과 스왓 지역 등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을만큼 한국의 불교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문화재청은 '혜초 스님의 서역 기행 알리기' 프로젝트와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 지원 사업의 연계 추진을 통해 파키스탄 내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고대 문화교류 역사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올해 5월, 보존과학 전문가를 파키스탄 교육역사문헌유산부에 파견해 사전조사를 진행했으며, 우기에 수장고의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유물에 지속적인 손상이 발생됨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파키스탄의 수장고 보존환경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보존을 위한 장비 지원과 유물관리 교육도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 분야의 보존관리 기술과 체계를 바탕으로 찬란한 간다라 문화의 유물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는 보존·보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동상·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